

## Salvatore Sciarrino

- SONATINA (1977)  
per violino e pianoforte
- IL MOTIVO DEGLI OGGETTO DI VERTO (1986)  
per due flauti e pianoforte  
  
<attacca>
- CENTAUBRO MARINO (1984)  
per clarinetto, violino, viola, violoncello e pianoforte
- QUARTETTO N.7 (2000)  
per archi

- Intermission -

- IMMAGINE FENICIA (1996)  
per flauto amplificato
- MURO D'ORIZZONTE (1997)  
per flauto in Sol, corno inglese, clarinetto basso in Si ♭
- IN NOMINE NOMINIS (2001)  
per otto esecutori

Myunghoon Park

- DECET (2023) \*World Premiere  
for Ensemble and Electronics

\*Salvatore Sciarrino 작품의 작곡년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NOTES

## · SONATINA

- I. Presto - II. Adagio - III. Rondino

## · IL MOTIVO DEGLI OGGETTO DI VERTO

"Il motivo degli oggetti di vetro"는 음악적으로 묘사된 환경을 통해 강력한 환상적, 마법적 능력을 보여주는 Salvatore Sciarrino의 작품입니다. 이 곡은 Stromboli 섬의 한 오후를 묘사하며, 갈매기, 매미, 파리, 작은 보트, 그리고 화산의 불만족스러운 소리 같은 자연스러운 소리를 두 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로 재현합니다. Sciarrino는 투명함과 반사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진 유리의 이미지를 통해 인지와 인식을 넘어서는 지각의 연구를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기술적인 면보다는 악기의 시적인 사용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음악적 소리가 아닌,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소리를 자연주의적 형태로 사용합니다. Sciarrino는 이 작품에서 전통적인 음표가 아닌, 이상한 소음을 통해 전통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닌, 보편적인 소리로부터의 정복을 보여줍니다.

## · CENTAUBRO MARINO

"Centauro marino"는 1984년에 작곡된 작품으로 클라리넷,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피아노를 위해 작곡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Peter Kehr에게 헌정되었으며, 1984년 11월 18일 이탈리아 포자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실존에 대한 고민, 그리고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경계에서 탐구되는 음악적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치 꿈의 가장자리에서 해양 사막과 같은 크고 무인자대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며, 영적 육체성을 통해 영혼과 신체가 서로 교환되는 상태를 드러냅니다.

## · QUARTETTO N.7

"Quartetto N. 7"은 Sciarrino의 음악적 탐구와 창작 철학의 깊이를 반영하는 작품입니다. Sciarrino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보컬 스타일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는 그의 주요 작곡 목표 중 하나로 지난 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는 보컬 표현을 기존 악기의 모방이나 평범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의미 없는 구사대적 모티프로부터 벗어나 노래의 힘을 되찾는데 집중합니다.

이 작품에서 Sciarrino는 보컬의 발견을 악기에 적용하여, 단순한 기교보다는 깊은 감정적 표현과 친밀한 전통을 추구합니다. 이는 베토벤의 아다지오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음악적 표현의 진정성과 깊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Sciarrino는 연주자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음악의 치유력과 감정적 표현력을 강조합니다. 연주자의 개별적 해석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작품으로, 각 연주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을 이끌어내도록 도전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악보의 노트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와 청중, 그리고 연주 공간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경험을 만들어내려는 Sciarrino의 음악적 접근을 반영합니다. 이는 오르페우스의 신화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음악의 변형력과 음악적 장벽을 넘어서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연주자와 청중 모두에게 깊은 감정적 참여와 직접적인 관여를 요구하는 독창적인 음악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 · IMMAGINE FENICIA

"Immagine Fenicia"는 Salvatore Sciarrino의 작품 중 하나로, 그의 특유의 음악적 언어와 표현 방식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Sciarrino는 전통적인 멜로디와 리듬의 구조를 해체하고, 대신 독특한 음색, 다이나믹스, 그리고 음역을 활용하여 새로운 음악적 차원을 탐구합니다.

이 작품에서 Sciarrino는 플루트를 단순한 멜로디 생성 도구가 아닌, 다양한 소리의 질감과 공간을 탐색하는 매체로 사용합니다. "Immagine Fenicia"에서는 전통적인 플루트 연주 기법을 벗어나, 호흡과 소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치 악기가 살아 숨 쉬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Sciarrino는 청중에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원시적이고 원형적인 소리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Immagine Fenicia"는 Sciarrino의 음악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소리의 그림자'를 구현합니다. 여기서 소리는 물리적인 현상을 넘어서, 청중의 기억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추상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작품은 청중에게 단순한 청취 경험 이상을 제공하며, 소리와 침묵, 그리고 호흡 사이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통해 강렬하고도 동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 MURO D'ORIZZONTE

"Muro d'orizzonte"는 Salvatore Sciarrino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천국, 연옥, 그리고 지옥이 충돌하는 듯한 강렬한 이미지와 음향을 연출합니다. 이 곡은 알토 플루트, 잉글리쉬 혼, 그리고 베이스 클라리넷을 사용하여 66마디 동안 시간을 마치 조각하듯 표현합니다.

작품은 표면적으로 단순한 4/4 박자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마디의 시작 부분에 강조된 대담한 액센트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형화된 구조는 곡의 중반부에서 갑자기 해체되며, 그동안 강조되거나 반복되던 요소들이 혼란과 재앙적인 형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강조되던 요소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Sciarrino는 이 곡에서 일련의 독특한 음향 효과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음악적 형식과 멜로디의 경계를 넘어서며, 청중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음악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소리와 침묵, 그리고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음악적 서사를 구축하며, 이 과정에서 듣는 이로 하여금 강렬하고도 동화적인 감각적 경험을 하게 합니다. "Muro d'orizzonte"는 음악적 형식과 구조에 대한 Sciarrino의 도전적인 탐구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전통적인 음악적 틀을 넘어서는 그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대변합니다.

## · IN NOMINE NOMINIS

"In nomine" 작곡 방식은 기존 음악적 소재를 취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재작업합니다. 이는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미사곡과 모테트 작곡에 적용되며, 기존 음악을 채택하고 재작업하는 방식은 음악 제작의 핵심 특징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영국의 "In nomine" 장르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John Taverner의 6성부 미사 "Gloria tibi Trinitas"에서 유래했습니다.

Sciarrino의 "In Nomine Nominis"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형식을 벗어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며, "In nomine" 전통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즉, 전통적인 "In nomine" 형식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해석한 작품으로, 그의 독창적인 음악적 언어와 실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 · DECET

'Ensemble Eins'의 10주년 기념 연주회를 위해, 아인스 연주자 10인(2 Flutes, 1 Oboe, 1 Clarinet, 1 Piano, 2 Violins, 1 Viola, 2 Violoncellos)의 편성으로 구성하여 작곡 했습니다. 작품의 구성은 양상을 아인스의 10년간의 행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단 연주회 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온 단체의 모습을 음악의 흐름으로 적용하여 작곡했고, 각 연주자가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 Ensemble Eins

Artistic Director 박명훈

Flute 손소이, 오병철

Oboe 안효정

Clarinet 김민욱

Piano 윤혜성

Violin 강민정, 송화현

Viola 이상민

Violoncello 박새미로, 주윤아

Conductor 김강현(Guest)

EN  
SEM  
BLE  
EINS